



### 가축공제보험료 인하

한·육우 6.5%, 돼지 10.8%, 가금류 8%, 말 11.4% 올해부터 가축공제 보험료가 지난해보다 최고 11% 인하되고 농업인 재해공제의 사망보상금도 1천만원 늘어났다.

농림부와 농협에 따르면 올해 농업인이 가축공제에 가입할 때 부담하는 공제료(보험료)가 한우와 육우는 6.5%, 돼지는 10.8%, 가금류는 8%, 말은 11.4% 내렸다.

가축공제는 농가부담 보험료의 절반을 정부가 보조해주는데, 올해 정부 지원예산이 지난해 150억 원에서 246억 원으로 60% 이상 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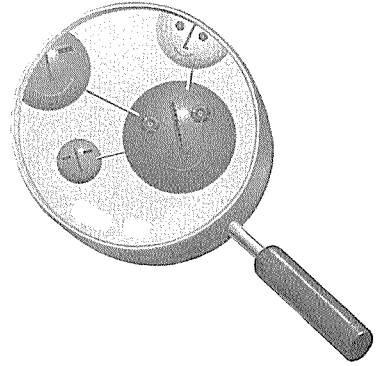
이에 따라 돼지 1천마리를 사육하는 농가가 올해 가축공제에 가입할 경우 납부할 보험료는 지난해 203만 5천 원보다 21만원가량 적은 182만 4천 원(2지역 2급 기준)이 된다.

〈수의축산신문〉

### 낙진회, 통계DB 원스톱 검색 사이트 개설

업계 최초로 낙농통계정보 사이트가 개설됨에 따라 국내외 낙농통계의 원-스톱(one-stop)검색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낙농진흥회(회장 양정화)는 지난 2일 젖소산지가격부터 원유생산, 유통 소비, 수급, 해외동향까지 각종 국내외 낙농통계를 망라해 DB화함에 따라 낙농업에 종사하는 모든 이들이 각종 통계자료를 쉽게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로이 개편된 낙농통계정보사이트는 ▲ 통계 DB를 활용, 낙농현장에 맞는 경영지표를 스스로 설정할 수 있도록 다양한 2차 분석 통계 컨텐츠 구축 ▲ E-메일뉴스전달체계 구축(월2회 회원 대상으로 인터넷 낙농리포트 제공) ▲ 온라인 E-book체제인 낙농전자도서관 구축(월간낙농, 낙농편람 등 간행물과 전문서적을 웹상으로 제공) 등이 포함돼 있다. 또한 지식낙농코너에서는 ▲ 목



장경영수익의 자가진단이 가능한 ‘낙농경영진단 프로그램’ ▲ 우유의 유질, 목장규모의 전국순위를 파악하는 ‘내 우유 몇 등’ ▲ 날씨변화에 따른 사양관리정보를 실시간 제공하는 ‘클릭! 날씨와 낙농’ 등 유익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담고 있어 낙농현장실정에 맞는 경영, 사양관리 목표를 스스로 설정하고 활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농수축산신문〉

#### 해양배출 축분뇨 위해성 조사 착수

정부가 해양배출 가축분뇨에 대한 위해성 조사에 나섰다. 농림부는 최근 축산연구소와 농협중앙회 대한양돈협회 등 관련 연구기관 및 생산자단체와 합동으로 가축분뇨 해양배출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이는 가축분뇨가 해양오염의 주요인으로 지목, 해양배출 금지가 추진되고 있는데다 공공처리장에서 배출되는 축산폐수에 대한 자료가 가축분뇨에 적용됨에 따른 것이다.

오는 10일까지 지속될 이번 조사는 경기도와 충남도, 경남도 등 3개도의 해양배출 축산농가 각 20개소와 인천, 군산, 김해의 해양배출 업체 각 3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다.

〈축산신문〉

#### 구제역 특별방역대책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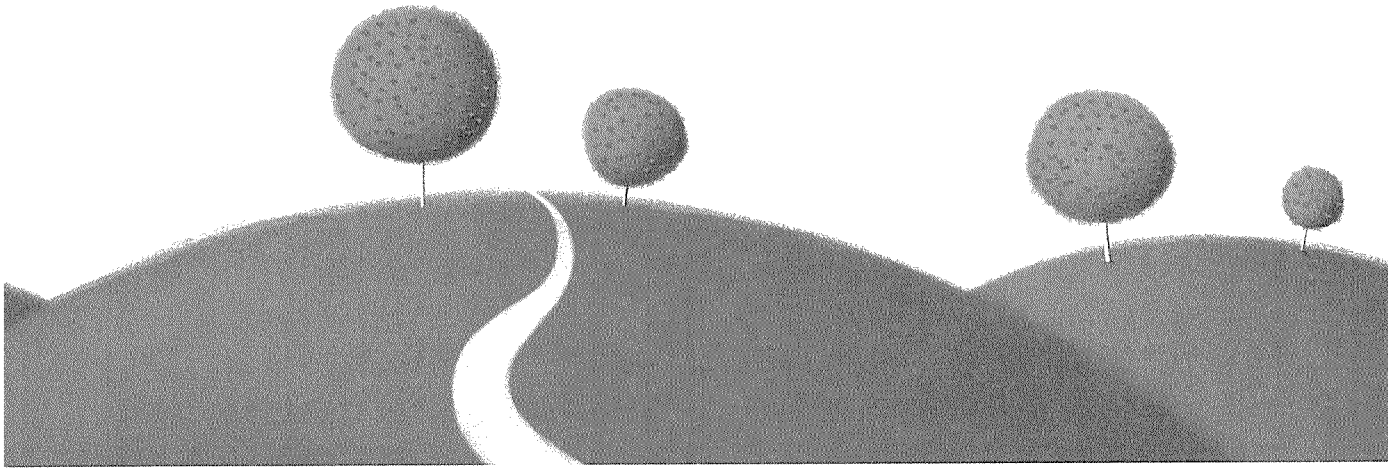
농림부가 3월 1일부터 오는 5월 30일까지를 구제역 특별방역대책 기간으로 설정하고 강도 높은 국경검역과 국내방역 활동을 추진키로 했다.

김창섭 농림부 가축방역과장은 지난달 27일 구제역 특별방역대책 추진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지자체·생산자단체는 물론 관세청·해양경찰청·행정자치부 등 관계부처와도 공조체제를 점검하고 협조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구제역은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지역에서 매년 발생하고 있고 특히 우리나라와 인접한 중국, 러시아 등지에서 확산 추세에 있어 인적·물적 교류가 활발해지는 봄철에 국내 유입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농림부는 구제역 병원체의 유입 매체로 알려진 수입건초와 해외여행객의 신발을 철저히 소독하고 해외여행객이 가지고 오는 불법 휴대축산물이 국내에 반입되지 않도록 국경검역·검색을 강화키로 했다.

한편 농림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추진해 왔던 AI(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조치를 2월로 마무리하고 3월부터는 국내방역은 평시 방역체계로 전환하고 국경검역 활동은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농수축산 신문〉



낙농 의무자조금 빠르면 4월부터 조성  
빠르면 4월부터 연간 최대 84억원 규모의 낙농  
의무자조금이 조성된다.

낙농자조금 대의원회는 지난달 24일 가진 첫 총  
회에서 낙농의무자조금 사업을 도입키로 하고  
거출금액을 리터당 2원으로 정했다. 원유생산량  
을 210만톤으로 가정하면 낙농 의무자조금 최대  
예산은 연간 84억원이 된다.

대의원회는 또 의장으로 전북 고창 김장현 대의  
원을 추대하고 감사 2명과 관리위원 19명을 위  
촉했다. 김 의장은 한국낙농육우협회 전북도지  
회장을 역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빠르면 4월부터 거출이 시작되며 올  
해 사업규모는 정부보조를 포함 약 59억원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날 위촉된 관리위원은 △경기 김광겸, 이광용,  
김태섭, 박응규, 이종찬, 박동성, 이상덕, 강의웅  
(감사) △강원 이석연 △충남 이용우, 이경화, 이

경용(감사), 장종수 △충북 곽한무 △경남 박철  
용, 오정곤 △경북 손광익, 이수길 △전남 박충  
남, 강동준 △전북 박헌술 이상 21명이다.

〈농수축산신문〉

#### 축산용 톱밥 부가세 환급 적용

양돈농가에서 퇴비 제조시 수분조절제로 사용  
하는 톱밥이 오는 4월1일부터 부가가치세 환급  
이 적용되는 품목으로 지정돼, 양돈농가에서 톱  
밥 구입시 부가가치세 환급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이는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  
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개정에 따라 축산용 톱밥(퇴비  
제조시 수분 조절제)이 부가가치세 환급 품목으  
로 적용됨에 따른 것이다.

〈수의축산신문〉